



#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와 자녀의 지각 비교

권 미 경<sup>1)</sup>

1) 관동대 의과대학 간호학과 교수

= Abstract =

## Comparison of Child-rearing Attitudes of Parents and Problem Behavior of Children as Perceived by Parents and Children

Kwon, Mikyung<sup>1)</sup>

1)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Kwandong University

**Purpose:** In this study a comparison was done of child-rearing attitudes of parents and problem behavior of children as perceived by parents and children.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205 fifth and sixth graders living in the city of Gangneung and their parents. The child-rearing attitudes and the problem behavior were assessed using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Results:** The perception scores of the parents and children for total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There were als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ubcategories, affectionate-hostile, autonomous-controlling, rational-irrational. The scores for total behaviors problem as well as the sub-categories were all significantly different for the parents and children. **Conclusion:** As there were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child-rearing attitudes of parents and problem behavior of children between parents and their children, nurses should help parents to communicate with their children with affection and respect, and to observe their environment to identify problem behavior.

**Key words :** Child-rearing attitude, Problem behavior, Perception

**주요어 :** 양육태도, 문제행동, 지각

교신저자 : 권미경(E-mail: mkkwon@kd.ac.kr)

투고일: 2009년 1월 8일 심사완료일: 2009년 2월 25일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won, Mikyung(Corresponding Author)

Department of Nursing, Kwandong University

522 Naegokdong, Gangneung city, Gangwondo 210-701, Korea

Tel: 82-33-649-7614 Fax: 82-33-649-7610 E-mail: mkkwon@kd.ac.kr

## 서론

### 연구의 필요성

아동에게 있어서 가정은 최초의 사회적 경험이며, 부모-자녀 관계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로서 그 어떤 사회적 관계보다도 더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는다 할 수 있다. 부모-자녀간의 관계에서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행사하는 모든 행동과 사고를 양육태도라고 할 때(Um, 1992) 자녀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통해서 사회적 역할과 태도, 가치 등을 발달시키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성장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Baek, 1999). 특히 학령기 아동은 자아성장의 결정적 시기로 긍정적인 자아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며 학습의 토대, 인간관계를 위한 사회성 발달 등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 능력을 습득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또한 부모와 자녀가 열린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관계의 형성은 자녀의 심리적 성장 뿐 아니라 청소년기의 적응을 위한 준비의 의미도 내포한다. 따라서 이시기의 부모 양육태도와 역할의 역량에 따라 자녀가 받는 영향은 다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Kim & Goo, 2007).

그러나 부모-자녀관계는 단순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속해 있는 가족을 둘러싼 주변 환경인 부모, 교사, 친척, 이웃, 지역사회, 사회 전체의 여러 기관 등의 영향을 받는다(Vondra, Sysko, & Belsky, 1993). 또한 양육행동이나 양육태도는 부모의 특성, 자녀의 특성, 환경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각각의 특성은 단일적으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상호관련성을 띄면서 복합적으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Luster & Okagaki, 1993).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부모의 신체적인 벌, 거부적인 태도, 애정결핍, 무관심, 자녀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 및 권위주의적, 비일관적인 양육태도를 지닌 부모의 자녀는 분노를 많이 표현하고 순종적이지 않으며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며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 Park, 2002; Gottman & Katz, 1989). 또한 부모가 일관된 양육태도를 보이는 가정의 아동은 대인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해서 더 다양한 해결책을 생성해내며(Jiong, 2008),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양육행동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문제행동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Kim, 2003). 따라서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주로 문제행동의 근원을 가족 환경에서 찾고자 하였으며(Park, 2002; Kwon & Lee, 1999). Webster-Stratton과 Herbert(1994)는 아동이 문제 행동을 나타내게 되는 주요 원인이 부모의 양육태도 방식에 있다고 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파악하는 것은 부모 자신이 지각하는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것과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으며 대부분의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들은 부모 혹은 아동만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연구하였다. 그러나 Combs와 Snygg에 의하면 인간은 사물이나 사실을 존재하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인간 자신의 지각 방식이나 과거 경험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지각하기 때문에(Beon, 1994에 인용됨) Oh와 Lee의 연구에서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의 실제적 양육태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서 그 객관적 속성에 못지않게 자녀가 이를 어떻게 지각하느냐가 중요하며 부모가 잘 대해주어도 자녀가 부정적으로 지각할 수 있고 반대로 그렇지 않을 경우라도 자녀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자녀의 정의적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Beon, 1994에 인용됨). 따라서 부모와 자녀가 지각하는 양육태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또한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한 연구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동의 문제 행동을 가족 환경에서만 관찰하기 때문에 아동이 속해 있는 학교나 사회 환경에서 보이는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며 또한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감정이 많이 포함된 내재화된 행동문제는 부모의 관찰보다는 아동 자신이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생각하는 것 보다 더 많은 행동 문제가 자녀에게 있어도 부모가 정확하게 알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가 지각하는 부모 자신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문제행동 정도와 그 자녀인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문제행동 정도를 조사하여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와 자녀간의 지각에는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여 부모교육프로그램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와 아동이 지각하는 양육태도와 아동의 문제행동 정도와 두 군 간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부모와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 정도와 차이를 파악한다.
- 부모와 아동이 지각하는 아동의 문제행동 정도와 차이를 파악한다.

### 연구 방법

#### 연구 설계

본 연구의 설계는 부모와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차이를 조사하는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기간

본 연구의 대상자는 G시에 있는 임의 표집 된 2개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2004년 10월 2일부터 19일까지 383쌍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자 수는 연구의 검정력 확보를 위해 Edfelder, Faul과 Buchner (1996)에 의한 G\*POWER MS-DOS program을 통해 산출하였으며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effect size= .15(medium)일 때 필요한 최소 대상자 수는 187명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일반화를 위해 400명 내외의 대상자에 대한 자료 수집을 목표로, 연구목적에 동의한 383쌍, 아동용 383부, 부모용 383부 총 766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학교장과 각 담임선생님께 연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여 설문지는 임의 표집 한 학급의 담임을 통해 연구에 동의한 아동에게 배부되었으며,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문제행동은 학교에서 아동들이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어머니 아버지가 지각하는 자신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문제행동 설문지는 가정으로 보내 연구에 동의한 부모가 작성한 후 회수하였다. 회수된 383쌍의 자료 중에서 설문지 부실한 178쌍을 제외한 205쌍(회수율 53.5%)을 대상으로 부모가 지각하는 양육태도와 아동의 문제행동 각 205부,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 문제행동 각 205부 총 410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 연구 도구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지의 내용은 부모와 아동에게 동일한 내용의 일반적인 특성 10문항과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40문항,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40문항과 아동의 문제 행동을 측정하는 50문항으로 총 14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 부모의 양육태도 척도

부모가 지각한 부모자신의 양육태도와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Oh와 Lee (Beon, 1994에 인용됨)의 양육태도 진단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양육태도를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 등 4개의 차원으로 분류하였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양극화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합하여 부모의 양육태도 점수로 계산하였다.

연구 시작 전 본 연구 대상자와 같은 학년의 남녀 학생 각

10명에게 사전 검사를 실시하여 아동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비슷한 문항에 대해 수정하여 사용하여 4개의 차원에 각 10 문항씩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가 지각한 부모 자신의 양육태도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5이었고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8이었으며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5점에서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된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애정, 자율, 성취, 합리)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양육태도가 부정적(적대, 통제, 비성취, 비합리)인 것을 의미한다.

### ● 아동의 문제행동 척도

아동,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평가 척도(Youth Self-Report: K-YSR; Oh, Lee, Hong, & Ha, 1998) 중 문제행동 중후군 척도의 일부 문항 중 내재화 문제에 위축, 우울/불안의 하위척도와 외현화 문제에 비행, 공격성의 하위척도에 해당하는 문제행동 문항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부모가 지각하는 아동의 문제행동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3이었고 아동이 지각하는 아동의 문제행동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1이었으며 내재화 문제행동의 하위영역으로 위축 9문항, 우울/불안 11문항과 외현화 문제행동의 하위영역으로 비행 8문항, 공격성 22문항으로 총 5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별로 점수체계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0점, '가끔 그런 일이 있었거나 그러한 경향이 있다' 1점, '딱 들어맞거나 그런 일이 자주 있었다' 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많음을 의미한다.

##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부모와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문제행동의 차이는 평균과 표준편차, t-test를 이용하였다.

## 연구 결과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여아가 58.5%(120명), 남아가 41.5%(85명)이었다. 학년 분포는 6학년 75.1%(154명), 5학년 24.9%(51명)이었으며, 출생순위는 첫째 및 막내가 38.5%(79명)이었다. 아버지, 어머니의 연령은 40~49세가 84.4%(173명)와 67.8%(139명)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의 교육정도에서 아버지의 학력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05)

| Variables                          | Division                | N   | %    | Variables                       | Division                | N    | %    |
|------------------------------------|-------------------------|-----|------|---------------------------------|-------------------------|------|------|
| Sex                                | Male                    | 85  | 41.5 | Grade                           | 5th year                | 51   | 24.9 |
|                                    | Female                  | 120 | 58.5 |                                 | 6th year                | 154  | 75.1 |
| Birth order                        | Only sun                | 10  | 4.9  | Type of living together         | Parents                 | 195  | 95.1 |
|                                    | First                   | 79  | 38.5 |                                 | Mother                  | 8    | 3.9  |
|                                    | Middle                  | 37  | 18.0 |                                 | Father                  | 1    | 0.5  |
|                                    | Last                    | 79  | 38.5 |                                 | Without parents         | 1    | 0.5  |
| Father's age                       | 30~39                   | 25  | 12.2 | Mother's age                    | 30~39                   | 64   | 31.2 |
|                                    | 40~49                   | 173 | 84.4 |                                 | 40~49                   | 139  | 67.8 |
|                                    | 50≤                     | 7   | 3.4  |                                 | 50≤                     | 2    | 1.0  |
| Father's educational background    | Under middle school     | 7   | 3.4  | Mother's educational background | Under middle school     | 10   | 4.9  |
|                                    | High school             | 66  | 32.2 |                                 | High school             | 104  | 50.7 |
|                                    | College and above       | 132 | 64.4 |                                 | College and above       | 91   | 44.4 |
| Father's job                       | Professional            | 16  | 7.8  | Mother's job                    | Professional            | 8    | 3.9  |
|                                    | Office work             | 103 | 50.2 |                                 | Office work             | 38   | 18.5 |
|                                    | Mom and pop and service | 83  | 40.5 |                                 | Mom and pop and service | 48   | 23.4 |
|                                    | No                      | 3   | 1.5  |                                 | No                      | 111  | 54.1 |
| Father-mother relations            | Good                    | 179 | 87.3 | Religion                        | Christian               | 43   | 21.0 |
|                                    | Moderate                | 26  | 12.7 |                                 | Catholic                | 10   | 4.9  |
|                                    | Very much               | 48  | 23.4 |                                 | Buddhism                | 91   | 44.4 |
| Helping household chores by father | A little                | 144 | 70.2 | No religion                     | 58                      | 28.3 |      |
|                                    | Never                   | 12  | 5.9  | The others                      | 3                       | 1.5  |      |
|                                    | No answer               | 1   | 0.5  |                                 |                         |      |      |

이 대학교졸업이상이 64.4%(132명)로 가장 많은 반면 어머니의 학력은 고등학교졸업이 50.8%(104명)로 가장 많았다. 부모의 직업에서 아버지의 직업이 사무직이 50.2%(103명)인 경우와 어머니가 직업이 없는 경우가 54.1%(111명)로 가장 많았다. 부모의 부부관계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는 사이가 좋으시다'가 87.3%(179명)로 가장 많았으며 아버지의 가사참여 정도는 '간단한 것만 도와주신다'가 70.2%(144명)가 가장 많았다. 부모와의 동거 여부는 부모 모두와 같이 사는 경우가 95.1%(195명)로 대부분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다(Table 1).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부모와 아동의 지각

부모가 지각한 양육태도와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는 Table 2와 같다. 전체적인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부모와 아동의 지각 점수는 3.79±0.34점과 3.74±0.41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107.77, p= .000). 세부 영역인 애정-적대

영역에서 부모가 지각한 경우는 3.92±0.40점, 아동이 지각한 경우가 3.98±0.55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t=-8.89, p= .000), 자율-통제 영역에서도 부모가 지각한 점수가 3.58±0.34점으로 아동이 지각한 3.25±0.36점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t=5.35, p= .000), 합리-비합리 영역에서는 부모가 지각한 점수는 3.93±0.42점, 아동이 지각한 점수 3.77±0.53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5.17, p= .000). 그러나 성취-비성취 영역에서 부모가 지각한 양육태도의 점수는 3.72±0.39점이고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의 점수는 3.71±0.46점으로 부모의 지각 점수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차이는 없었다(t=0.45, p= .652).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와 아동의 지각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와 아동의 지각은 Table 3과 같다. 전체 문제행동에 대한 지각에서 부모의 지각 점수는

Table 2. Child-rearing Attitude of Parents

(N=410)

| Child-rearing attitude       | Perceived by parents |       | Perceived by children |       | t       | p      |
|------------------------------|----------------------|-------|-----------------------|-------|---------|--------|
|                              | Mean                 | ±SD   | Mean                  | ±SD   |         |        |
| Affectionate-hostile         | 3.92                 | ±0.40 | 3.98                  | ±0.55 | -8.89   | .000** |
| Autonomous-controlling       | 3.58                 | ±0.34 | 3.25                  | ±0.36 | 5.35    | .000** |
| Achievement-non-achievement  | 3.72                 | ±0.39 | 3.71                  | ±0.46 | 0.45    | .652   |
| Rational-irrational          | 3.93                 | ±0.42 | 3.77                  | ±0.53 | 5.17    | .000** |
| Total child-rearing attitude | 3.79                 | ±0.34 | 3.74                  | ±0.41 | -107.77 | .000** |

\*\*p < .01

Table 3. Behavioral Problems of Children

(N=410)

| Behavioral problems          | Perceived by parents |           | Perceived by children |          | t | p |
|------------------------------|----------------------|-----------|-----------------------|----------|---|---|
|                              | Mean ±SD             | Mean ±SD  | Mean ±SD              | Mean ±SD |   |   |
| Depression/anxiety           | 0.30±0.25            | 0.56±0.38 | -8.91                 | .000**   |   |   |
| Withdrawal                   | 0.27±0.28            | 0.47±0.34 | -5.84                 | .000**   |   |   |
| Internal behavioral problems | 0.28±0.24            | 0.52±0.33 | -11.13                | .000**   |   |   |
| Contained delinquency        | 0.06±0.11            | 0.18±0.19 | -0.23                 | .000**   |   |   |
| Aggression                   | 0.29±0.20            | 0.53±0.28 | -22.00                | .000**   |   |   |
| External behavioral problems | 0.18±0.13            | 0.35±0.21 | -3.52                 | .000**   |   |   |
| Total behavioral problems    | 0.23±0.16            | 0.44±0.25 | -9.79                 | .000**   |   |   |

\*\*p < .01

0.23±0.16점, 아동의 지각 점수는 0.44±0.25점으로 아동의 문제 행동 지각 점수가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9.79, p= .000).

문제행동의 하위 영역 중 내재화 문제 영역인 우울/불안에서 부모가 지각한 점수는 0.30±0.25점, 아동이 지각한 점수는 0.56±0.38점(t=-8.91, p= .000), 위축에서 부모가 지각한 점수는 0.27±0.28, 아동이 지각한 점수는 0.47±0.34점(t=-5.84, p= .000)으로 두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아동이 지각한 문제 행동 점수가 높았다. 또한 외현화 문제행동 영역인 비행에서 부모가 지각한 점수는 0.06±0.11점, 아동이 지각한 점수는 0.18±0.19점(t=-0.23, p= .000), 공격에서 부모가 지각한 점수는 0.29±0.20점, 아동이 지각한 점수는 0.53±0.28점(t=-22.00, p= .000)으로 두 영역에서 부모가 지각한 아동의 문제행동 점수보다 아동이 지각한 아동의 문제행동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논 의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는 부모가 비교적 일관성 있게 보편적으로 기르고 가르치는 양태이며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결정해주고 자녀의 지적, 정서적, 성격적, 태도적 측면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Jiong, 2008). 특히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하므로 학령기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부모가 실제로 보여주는 양육태도를 아동은 다르게 지각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나타내는 양육태도를 아동은 어떻게 지각하며 또한 부모도 자신의 양육태도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그 둘 간에는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아동 양육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문제행동에 대한 후속 연구로서 학령기 아동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와 아동이 각각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문제행동 정도와 차이를 파악하여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부모와 아동의 지각 정도에서 전

체 양육태도와 애정-적대, 자율-통제, 합리-비합리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각 차이가 있었으며 부모는 아동에 비해 자신의 양육태도를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였다. 이는 Smetana (1995)의 연구에서 부모 자신이 보고한 양육행동이 아동이 지각한 양육행동보다 더 긍정적이었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자녀들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부모와 자녀의 지각 차이를 비교한 Ham (2005)의 연구에서도 부모와 자녀가 지각하는 양육태도에는 차이가 있으며 부모가 지각한 양육태도 보다는 자녀 쪽에서 지각한 양육태도가 자녀의 내적 발달을 설명하는데 더 관련성이 많다고 하였다. 이는 Lee의 연구에서 아동은 주변의 환경을 주관적으로 지각하고 해석하기 때문에(Kim, 2007에 인용됨) 어머니가 자녀를 야기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벌을 주어도 자녀는 어머니가 자기를 미워하기 때문에 벌을 준다고 지각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의도적인 행동은 자녀에게 다르게 지각되어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녀가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는지는 실제 양육태도 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지각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부모-자녀간의 의미 있는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아동은 애정-적대 영역이 가장 점수가 높은 반면 부모는 합리-비합리 영역의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두 군 모두 자율-통제 영역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부모와 자녀인 아동 측면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를 동시에 조사하여 비교한 연구가 없기에 같은 수준에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를 조사한 Lee (2002) 연구에서 애정영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자율차원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것과 일치된 결과를 나타냈으며 영아기 부터 학령기까지 아동을 양육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조사한 Kim, Kim과 Kim (2003)의 연구에서도 애정 영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것과 일치하였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과하는 적절한 통제는 애정 못지않게 아동기의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중

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부모가 지나치게 허용적이거나 통제적인 경우 모두 아동의 성장발달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부모는 적절한 자율과 통제를 유지하여 자녀 스스로가 자기 통제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내면화된 자기 통제력은 부모의 영향력이 미치지 어려운 아동후기나 청년초기 자녀의 바람직한 사회적 적응을 준비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Song, 2006).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와 아동의 지각에서 전체 문제행동 뿐 아니라 하위 영역인 내재화 문제행동영역인 우울/불안, 위축행동과 외현화 행동인 비행, 공격행동 모두에서 두 군 간에 차이를 보였다. 특히 아동이 지각하는 문제행동은 부모가 지각한 문제행동 보다 모든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문제행동이 가정이나 학교, 지역사회에서 생활해 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요인들로 인해 유발된 행동적, 심리적 부적응인 면이 있는 행동이라고 볼 때 부모는 가정에서만 아동의 문제행동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행동을 적게 지각하지만 아동은 모든 곳에서의 자신의 문제행동을 지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행동을 부모보다 더 많이 지각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아동이 보이는 문제행동의 발생 원인은 개인 요인, 가정요인, 학교 요인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중 가정 요인으로는 부모의 교육과 모델링, 양육태도,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관계가 영향을 미치며 학교 요인으로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많은 것을 학교에서 경험하며 교사와 또래 집단과의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문제행동이 발생할 수 있다(Hong, 2008). 따라서 부모는 가족이외의 환경에도 관심을 가지고 자녀의 문제행동 발생의 원인을 여러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자녀의 성격 및 행동과 관련성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이들 연구에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아동의 내면화 문제와 관련이 있고 부모의 훈육 부족은 외현화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며(Kim & Chung, 2007) 민주적 양육태도와 자녀의 문제행동과는 유의한 부정적 상관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Kim, 2005). 또한 부모가 지각하는 양육행동과 자녀가 지각하는 양육행동은 차이가 있으며 부모의 양육행동을 적절하다고 지각한 자녀들은 그렇지 않다고 지각한 자녀들보다 문제행동을 적게 나타낸다(Bulkley & Chao, 2003).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문제 행동이 많은 아동의 경우 아동의 문제만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영향요인인 부모에 대한 사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부모는 적절한 양육태도를 취하고 이것이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부모-자녀 간에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부모역할 교육 또는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설하여 가정과 조직사회가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부모와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문제행동 정도 및 두 군간의 차이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 결과 부모와 자녀인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문제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는 자신의 양육태도에 대해서는 아동이 지각하는 것 보다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였고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자녀인 아동이 지각한 것보다 문제행동이 적은 것으로 지각하였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 양육 시 자신의 의도가 아동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부모-자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속하고 가정 이외의 환경에서 아동에게 문제행동을 일으킬만한 변인이 있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하며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부모와 자녀간의 지각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연구 대상자를 다변화하여 저학년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 부모와 양육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아동의 문제행동은 특히 부모와 아동의 지각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아동의 문제행동 유발 요인을 가정과 학교, 지역 사회에서 찾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 References

- Baek, H. J. (1999).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perception of economic hardship, marital conflict, parenting, attachment, and children's problematic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 Beon, Y. J. (1994). *The relationship among parent's attitude, non-rational belief and stress of adolesc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Bulkley, J., & Chao, R. (2003). *Adolescent perceptions of how parents should behave: Consequences for academic, behavioral, and emotional adjustment*. post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Tampa, F. A., April 2003.
- Edfelder, E., Faul, F., & Buchner, A. (1996). GPOWER: A general power analysis program.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28, 1-11.
- Gottman, J. M., & Katz, L. F. (1989). Effects of marital discord on young children's peer interaction and health. *Developmental Psychology*, 25:33, 373-381.
- Ham, M. Y. (2005). *The relation of the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by children to child dep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in University, Incheon.
- Hong, S. H. (2008).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 of school life and problem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Jiong, G. J. (2008). *The influence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 perceive of the parent's attitude of bring up their children the attitude of the acceptance for the age handicapped stud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 Kim, H. S. (2007). *The relationship among parents' rearing attitudes perceived by children, self-regulation ability and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in children's friendship*.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 Kim, J. O., & Goo, H. S. (2007). The development and the effect of parent education program on maternal child-rearing attitude.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y Association*, 25(1), 113-125.
- Kim, J. Y., & Chung, Y. K. (2007). Mediating effect of agg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practice and violence behavior in adolesc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t*, 14(5), 169-197.
- Kim, M. J. (2003). *The relations between children's perception of parental child rearing behaviors and their behavior problem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Kim, O. N. (2005). Parents' marital conflict, parenting attitude, and problems of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2(4), 83-104.
- Kim, S. J., Kim, Y. H., & Kim, K. S. (2003).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9(4), 392-398.
- Kwon, Y. O., & Lee, J. D. (1999). A validation study on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18(1), 65-78.
- Lee, S. H.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al fostering attitude and problem behavior of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Seoul.
- Luster, T., & Okagaki, L. (1993).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Publishers. NJ.
- Oh, K. J., Lee, S. J., Hong, K. E., & Ha, E. H. (1998). Parent-adolescent agreement in the assessment of behavior problems of adolescent (comparison of factor structures of K-CBCL and YSR). *Korean Journal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9, 3-12.
- Park, C. U. (2002). *The study regarding the marital relationship and the bringing up method of mother influenced on the problem conduct of the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 Park, H. K., & Park, S. Y. (2002). Father's parenting behavior, son's emotional regulations related son's aggressio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y Association*, 40(8), 87-98.
- Smetana, J. G. (1995). Parenting styles and conception of parental authority during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6, 299-316.
- Song, M. J. (2006). *Developmental psychology*, Hakjisa, Seoul.
- Um, K. S. (1992).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child - rearing attitudes and social maturity of child, and stress of child recognized by par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eimyung University, Daegu.
- Vondra, J., Sysko, H. B., & Belsky, J. (1993). *Developmental origins of parenting: Personality and relationship factor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Publishers. NJ.
- Webster-Stratton, C., & Herbert, M. (1994). *Troubled families-troubles children: Working with parents: A collaborative process*. Chichester: John Wiley & Sons.